

# 광산구 야호센터, 청소년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

인문학·3D에그퍼즐 온라인 강의  
12가지 놀이 즐기는 '게릴라 12씨'

2016년 설립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정책 이끌어...전국 벤치마킹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의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 유소년 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광주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정착됨에 따라 유소년을 위한 행복정책 지원을 위해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인 '야호센터'를 설립했다.

야호센터는 설립 이후 인문사유, 예술경험, 사회참여, 창의체험 분야로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소년이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배움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사태라는 현실에 맞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CONNECT(커넥트)-야호 통(通)하다'로 명명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추진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비대면을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오프라인 놀이를 병행하는 방식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김삼호(앞줄 가운데) 광산구청장과 청소년들이 타이어로 만든 놀이기구인 '굴렁' 접목 놀이 프로그램을 마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문적 사유를 위한 인문학 강의 '늘-Tact(언택) 인문학'과 3D프린터로 만든 달걀퍼즐로 창의적인 모양을 빚어내는 '3D에그퍼즐' 강의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다.

매주 화-금요일 오후 센터 야외광장에서는 현수막에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

는 '일상을 그리다', 12가지 놀이를 진행하는 '게릴라 12씨'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틀에 박힌 활동을 답습하지 않고 창의적·자기주도적 활동을 이어가는 중심에 야호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야호센터'는 이처럼 민선 7기 들어 집중 지원을 받은 덕분에 청소년 정책과 활동의 전국 명소로 자

리 잡았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교육관계자 3000여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139차례나 센터를 다녀갔다.

야호센터의 성과를 각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우선 인문사유로 청소년과 마을주민의 삶과 세상에 대한 사유의 경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주민들은 센터에서 매주 철학을 공부하고, 글을 쓰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예술과 인문 학습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삶을 꾸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에 예술가를 상주시켜 청소년들이 꾸준히 예술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삶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버려진 병뚜껑과 비닐, 전자제품과 타이어 등 다양한 물건들은 '업사이클 예술놀이 프로젝트 12씨'에서 청소년과 예술가의 놀이감 또는 작품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도 받는다.

타이어로 놀이기구를 만들고 올림픽처럼 다양한 종목으로 나눠 시합까지 하는 '굴렁'은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에 상표등록됐다.

'굴렁' 효과는 금호타이어와 광주시정보교육관, 호남대와 교육 협력으로도 이어졌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아이들이 창의적 사고를 갖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야호센터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광산구가 제시해 내겠다"고 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산수도서관 어린이북카페 개관 VR 체험 동화구연시스템 갖춰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이 어린이북카페를 운영한다. 산수도서관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사업에 선정돼 지난 5월부터 어린이북카페 조성 공사를 했으며, 지난 4일 문을 열었다.

어린이북카페는 기존 협소한 어린이자료실(189㎡)을 확대(273㎡)하고, 북스타트실과 장애인실, 갤러리 등 실별 공간을 통합·조정해 총 808㎡ 규모로 조성됐다.

어린이북카페에는 대형 3D 스크린 화면에 참여자의 모습을 투영하고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돼 독서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형 동화구연시스템'이 배치됐으며, 종이책에 부착된 태그로 음성 및 전자책을 사용할 수 있는 '더 책'과 다문화 도서 코너 등도 마련됐다.

산수도서관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3-6학년)을 대상으로 '독서백신! 면역력 UP!'을 주제로 여름 독서교실도 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폭염·태풍 피해 예방 대책 살수차 운행·폭염 저감시설 확대

광주시가 8월을 맞아 폭염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태풍과 국지성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도우미 운영, 다중밀집지역 주변도로 살수차 운영,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50곳 추가 설치, 건설·산업현장 등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등을 운영한다. 6일부터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한낮 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해 폭염에 대응한다.

시는 태풍과 강풍,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붕괴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 상황별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재해예방 정보제공과 피해복구 기술도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시농기센터 독거노인 등 대상 '찾아가는 치유농업 체험' 운영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0일부터 오감으로 즐기는 '찾아가는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8월21일부터 9월11일까지 매주 월·수·금 총 10회에 걸쳐 ▲행복 숲솔바구니 미니정원 만들기 ▲산소 뽀뽀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알록달록 테라리움 만들기 등 3개 테마별로 실시된다.

신청은 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메일(kyjin5875@korea.kr)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산구 '행복시책 보고회' 언택트 화상회의로

국별·부서별 74건의 행복시책 점검

광주 광산구는 "최근 구청 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언택트 화상회의로 '행복시책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민선 7기 하반기 구정 최고 가치인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별·부서별로 추진했던 총 74건의 행복시책의 경과를 보고했다.

주요 행복시책으로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세상에 없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영구임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추진 상황이 집중 거론됐다.

또 다투는 청년의 사회화를 지원하는 '단단한 청년, 든든한 광산 행복프로젝트'와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골목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골목상권 정보서비스' 지원 정책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힐링VR(가상현실) 체험 존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사물인터넷을 마을 운동기구에 부착해 건강을 측정하도록 돕는 '스마트(IoT) 운동기기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헬스100' 및 어르신들이 생애를 책자와 디지털사진첩으로 제작하는 '나의 행복 자서전 만들기 프로젝트' 등도 행복시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민선 7기 광산구정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나아가겠다"면서 "이번 언택트 화상회의처럼 변화된 환경에 잘 대응하면서, 내실 있게 준비한 행복정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코로나19 예방수칙 범시민 캠페인 운동' 확대 시행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범시민 캠페인 운동'을 확대 추진한다.

광산구는 매주 월요일 다중이용시설과 도심 주요 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와 마스크 배부 등을 전개한다.

또 주 2회 이상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일에는 출근시간에 맞춰 광주송정역 앞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공무원들이 참여해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위드 코로나, 위드 광주' 프로젝트 협약

성장지원센터광주와 문화행사 지원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광주는 지난 4일 도시철도공사에서 '위드 코로나, 위드 광주'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일상 준비에 나섰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다양한 방식의 문화 이벤트를 전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언택트(Onact) 문화 공연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단체 지원, 양동시장역의 사회적 경제 전사관을 활용한 특별 시민 이벤트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칠 계획이다.

윤진보 사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철저한 방역을 기본으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민에게 활력을 주는 다양한 이벤트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